

풍경의 기억상실, 차츰 낮선 문화경관으로 변하는 제주



김유정의 **다시 쓰는**
21세기 제주문화사건

<37> 노스텔지어

풍력시설 등 점유로 새로운 경관
경관의 디스토피아 돼 가는 제주
누가 '보물섬 제주도'라고 말하나

#사라지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히 말해 촌이라고 불렀던 농촌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던 내 동네의 풍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알던 장소가 폐허가 되고 다시금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승리를 구가하는 기념물을 보는 것 같은데, 모든 건물들이 미래를 쳐다보며 부실하고 의욕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언제나 문명의 시작과 끝을 연상할 수가 있다.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서 발전, 희망, 진보, 약속의 구호들을 앞세우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오늘 보는 폐허도 시작할 때는 단연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었던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새 것들을 볼 때마다 다시 폐허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당연함 너머로 나아가고 빛 바래는 것을 볼 때마다 웬지 모를 깊은 허탈함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퇴색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물의 한계 또한 그 연한이 있는 것이 그저 평범한 세상의 이치지만, 어쩌면 우리 일상은 평범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단순한 것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다 쳐버렸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누가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우리는 대뜸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한 채로 사라질 것이 역울한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 나머지 끊임없이 옛날을 향수(nostalgia)하고 있는 것이다. 향수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들이 달을 보거나 고향이 있는 방향의 하늘을 보며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현대인에게 고향이라는 개념이 낭만적이거나 아예 없을 지도 모른다. 인류의 경제적 형태의 진행 단계가 수렵→유목→농경→상공업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의 도시가 주축인 사회를 이루었는데, 그 도시의 삶



1 2007년 제주 풍경.
2 현재의 돌담 경관. 풍력시설이 만들어내는 문화경관이 제주 풍경 깊숙이 들어왔다.

이 세계 간 사람들이 서로 이주와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도시 유목민'이라는 신개념을 낳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술 혁명이 도래한 지금에 마치 유목민들이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유사하다는 데서 '도시유목민'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유목민이 고향이 없는 무장소 초원인 것처럼 도시의 삶에서는 고향이라는 장소 개념이 그리 중요치 않게 된다. 현대인에게는 어디에서든 렌트를 하면 서라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사실 고향은 인류가 정주민(定住民)이 되면서 확보한 토지, 가옥, 공동체의 소유 이념에서 생겨난 것이다. 지금 가진 문중(門中)의 제위전(祭位田), 가정의 농경지, 가옥, 방앗밭이나 마을 공동목장, 공동 묘지인야 등 공·사유지가 매매돼 버리면 더 이상 원초적인 고향은 없게 되고 정든 곳이 고향이 된다.

#국도의 일부였던 촌의 상실

고향이 사라지면서 점점 풍경이 바뀐다. 소유한 토지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용 건물, 아파트, 각종 새 시설물들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땅거미같이 점점 도시로부터 잠식이 일어난다. 원래 촌(村, 시골)은 국가를 의미한 동시에, 국토(land)의 일부를 의미하기도 했다. 제주시와 분리된 촌은 사회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회의 일부인 전원(田園) 지역일 수도 있다.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 촌은 그야말로 촌스럽고(후진적이고), 무지몽매하며, 보수적이고 편협한 곳이다. 반대로 도시는 모든 것의 중심

이 돼 기술, 학문, 소통, 소음이 있으나 기회와 야망의 장소로 생각된다(Raymond Williams, 2013). 도시의 세련됨이 촌의 소박함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정책도 촌을 위한 기획도 도시인들의 주도하에 도시스럽게 진행됐다.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만 식민지 지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자본, 문화, 전 영역에 걸쳐 도시와 촌 간의 토지, 재정, 사업권, 행정, 법률 등 점유, 이윤 취득, 심의, 개입, 간섭, 투자, 투기 점유 등에서 수탈에 가까운 관계가 성립된다. 촌은 도시에서 물려든 정책과 투기 자본으로 사유지와 공유지 수탈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사유지가 개인 간 매매라고 하지만, 공유지 수탈 방식은 민간 투자라는 이름으로 땅(공유지)은 지자체가 준비하고, 자본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으로 투자되는데, 이 민영화는 정확히 말하면 사유 자본이라고 해야 옳다. 한시적 임대 기간이 지나면 투자 기업이 소유하게 되는 각종 멋진 이름이 붙은 임대 주택 방식이 공유지의 한 수탈 방식 기술인데 원래 땅을 지키려면 기간제 임대 주택이 아닌 영구 임대주택으로 정책을 시작하고 임대 경영권을 민영화해야 마땅하다.

칼 사우어(Carl Ortwin Sauer, 1889-1975)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이론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시간이 바뀔 때 따라 특정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결국 그 자연경관은 그 환경을 접거한 사람들의 문화경관으로 바뀌는데 고정된 자연경관인 토양, 기후, 지하자원, 해안, 관계망,

식생 등이 특정 문화 그룹이나 자본 주체가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원래의 자연경관이 달라지는 것을 문화경관이라고 한다. 제주도 곳곳의 풍력시설은 점점 각 지역을 연속적으로 점유(Sequent occupance)하면서 제주도 전체 경관이 풍력 발전 사업에 의해 점점 다른 문화경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타운하우스, 리조트, 위락 공원, 군사기지 등으로 전통 마을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장소가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기억과는 다른 인정머리 없는 낯선 풍경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낯선 풍경? 사실 어떤 풍경도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풍경이 된 적은 없다. 쫓기는 일상이서 그것을 눈여겨보거나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 큰 변화를 감지하고 눈에 거스르는 때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비로소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풍경 기억상실(landscape amnesia)'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풍경 기억상실'이란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환경이 다르게 변한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미 새롭게 변해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10년 새 '풍경 기억상실'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여전히 어느 지역, 어디선가 어떤 기획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노스텔지어는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1970년대 제주도는 관광개발만이 곧 새로운 유토피아에 진입하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제주도를 말로는 인문학의 가치가 높은 보물섬이라고 하면서, 진정 그 가치를 지키

거나 계승하려는 문화정체는 없다. 섬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 빈 상자를 보고 나서야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있었는가. 하나의 이념은 무섭다. 도그마가 눈과 판단을 가리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을 부자로 설정하다보니, 선(善)과 불선(不善)이 돈으로 구분되었다.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소환하려는 향수병들이 곳곳에 있다. 있던 것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없던 것을 찾으려는 것을 크게 반성하라. 있던 것을 없게 만든 것은 그 역할을 진실 되게 수행지 못한 우리 자신을 알라.

유토피아로 시작해서 향수로 끝난 제주도. 한 여성학자는 향수를 "삶과 역사적 격변의 리듬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방어기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현실에 없던 유토피아가 다시 도래할 것을 꿈꾸게 만드는 상상이 향수의 위험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점점 경관의 '디스토피아'가 돼 가는 제주도. 경관을 말할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경관을 말한다. 사람들은 힘든 현실과 깜깜한 미래 앞에서 다시 유토피아를 그리워 할 것이다. 유토피아를 상상하면 할수록 노자에 "모든 것을 탄생케 한 '중묘지문(家妙之門), 혹은, 천지의 뿌리가 되는 '현비지문(玄北之門)'"으로 돌아가려는 향수에 젖는다. 아름다운 제주는 옛말이 됐고 돌아갈 유토피아도 없는데, 또 어디선가 제주도가 보물섬이라고 해적들이 노를 저어 온다.

<김유정 미술평론가(전문가)>

꽃자왈 공유화 릴레이 캠페인



2020, 삶이 아름다운 꽃자왈 동반자 "고맙습니다, 꽃자왈 동반자님!"

성황리 종료 (11.2~29)

꽃자왈 유산 매니저 (41명)

- 1주차** | 강민익(한림고등학교 교사) 김국주(꽃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김수영(한국관광공사 제주지역본부 부장) 김현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현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주차** | 김병훈(꽃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 변대근(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오은호(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이상주(고은이치과의원 원장) 이애리(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최성도(꽃자왈공유화재단 총무팀장)
- 3주차** | 강승표(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고윤권(사)제주생명의숲 상임공동대표) 고은일(꽃자왈공유화재단 회계팀장) 고종호(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장) 김현진(제주은행 이도지점장) 문창영(전 제주중앙시매물금고 이사장) 양길현(제주대학교 교수)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수) 지준호(커피파인더 대표) 현지현(꽃자왈공유화재단 사업팀)
- 4주차** | 강문규(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강문원(변호사강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승일(꽃자왈공유화재단 사업팀장) 고성민(에나신부인과의원 원장) 고승화(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류종길(한국지질환경연구소 소장) 문대림(제주국립유산지킴센터 이사장) 방성혜(세무법인 다슬터앤씨 제주점 대표부사) 원희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영신(주)누리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장영인(전 제주도의회 의장) 정경아(꽃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장) 조영락(제주국립유산지킴센터 운영사업본부장) 허철구(제주대학교 교수) 현원학(사)제주산태교육연구소 소장) 현창행(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

꽃자왈 유산 동반자 (총 445명)

- 1주차** | 강경민 강기중 강만익 김미숙 김민규 강민정 강서영 강성의 강승오 강승철 강시영 강경중 강중호 강태웅 고광범 고병철 고선식 고영관 고영미 고재훈 고종훈 김경희 김경윤 김경준 김기주 김대현 김병교 김민성 김상길 김성림 김석규 김석운 김성열 김성화 김세미 김수범 김승봉 김승관 김성현 김정은 김중선 김중현 김태웅 김현웅 김홍식 문영희 문종일 박용욱 박정현 박종현 박종현 박준상 부민근 부경의 부혜령 서현주 송경호 송현국 안철만 양 길 양영백 양정옥 양희정 원은주 이경민 이광배 이만희 이도현 이부사자 이상기 이상민 이상주 이상미 이숙희 이애리 이유정 이현미 이현주 임춘배 장 현 전영미 조사현 진영택 최하규 한성일 김택희미술관 대한기독교제주기독교청년회 덕산문화재단 아름다운가게제주동문점활동봉사자 / 88명
- 2주차** | 강권우 강명호 강우식 강현호 김재택 고광식 고민식 고선자 고성호 고순아 고영민 고정렬 고호웅 고희리 김기범 김명환 김민수 김민혁 김병수(구자철) 김병수(조천읍) 김석범 김세민 김연옥 김성선 김성수 김명지 김유리 김정걸 김경희 김중서 김지향 김진용 김준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준 문순희 문홍식 문 희 박소연 박지영 박진석 박철암 방 진 부수옥 부순영 부재호 성순수 송승호 송은혜 송진원 송호철 연두리안다부결 양술생 양연선 양중훈 오문호 오성덕 오성자 오정수 오현영 이경화 이남진 이도현 이부사자 이상기 이상민 이상주 이상미 이숙희 이애리 이유정 이현미 이현주 임춘배 장 현 전영미 조사현 진영택 최하규 한성일 한세봉 한승훈 한재호 허영봉 허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금빛문화예술단 ㈜대영엔지니어링 ㈜록아인개발 사업공공체 제주자연체험파크 ktcs투키어터이집 / 93명
- 3주차** | 강경민 강경희 강경희 강경일 강근복 강기주 강승표 강연호 강현식 강우미 강현일 강현정 강 희 강희은 고평우 고대인 고부자 고래용 고윤지 고정용 고종호 고주연 권우일 김경태 김규명 김금주 김동균 김동희 김병희 김보경 김상윤 김성철 김세연 김수남 김수용 김승남 김승룡 김승관 김성현 김승재 김유정 김윤경 김은영 김은현 김창용 김창용 김창환 김필수 김현근 김희범 문대현 문용훈 문재식 문지현 문창영 박순자 박철홍 박호남 부성옥 부애정 서 * 성수열 송사현 송은정 신다유 신동철 신사하 신승훈 신재이 신현이 양길현 양정환 양중훈 양효선 오상학 오시환 오지정 원순애 윤성민 이경준 이도환 이동휘 이명희 이우리 이철민 전미라 정다혜 제 라 조기석 조동용 조영주 좌중현 지준호 허소영 현보라 현세정 현정석 현창익 홍수연 홍정민 홍희기 / 104명
- 4주차** | 강상규 강민주 강우경 강승수 강영환 강현철 곽경호 곽권현 고미경 고미현 고선자 고성민(용문동) 고성민(화북동) 고순옥 고송화 고영관 고원미 고재학 고평열 고희훈 고희철 구대국 권오택 김경덕 김경민 김경준 김근자 김규중 김기영 김나영 김동희 김두현 김민정 김보현 김상훈 김성관 김성현 김승현 김승재 김유정 김윤경 김은영 김은현 김창용 김우철 김윤석 김익수 김재용 김경덕 김정학 김진근 김진희 김태양 김현정 김희숙 김희순 문대림 문병희 문선영 문성숙 문수중 문영호 문정일 박동주 박윤경 박정례 박희정 박재범 백준철 백원민 백중진 부복주 부영국 부희구 서미향 송관필 송나경 송정희 송 * 안경준 안상훈 양방규 양병수 양상철 양순미 양한수 여영준 오경성 오순열 오인선 오정호 오정희 원양숙 유영중 유영호 유영선 유철훈 윤경섭 윤성민 이계자 이기호 이명혜 이광훈 이복자 이상규 이숙희 이영순 이은희 이종욱 이현재 이해란 임수현 장영배 장은심 장정연 전문수 전영주 정경애 정순례 정영림 정용대 정은영 정은용 정진우 정철민 정혜영 정 훈 조영숙 조은일 조하정 조현서 지창언 진세이 진예지 진유하 최광호 최명숙 최미경 최봉석 최영락 최원철 최희민 최희순 허 현 현상철 현임중 현진민 현창행 홍나나 홍성지 황미자 삼화석유㈜ 세무법인디슬터앤씨제주 영도종합건설㈜ 오꽃탐시 ㈜제이엘제주용암수 ㈜한백개발 / 157명

■ 꽃자왈 유산 매니저 : 꽃자왈 유산 동반자를 모셔오는 캠페인 선도 활동가
 ■ 꽃자왈 유산 동반자 : 꽃자왈 유산 매니저 통해 꽃자왈 공유화 기금 기부자가 되시는 분, 자율적으로 꽃자왈 공유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기금을 기부하시는 분

■ 참여자 안내 : 11월 1주차 참여자는 제주일보(11월 9일자) 3면, 2주차 참여자는 한라일보(11월 16일자) 5면, 3주차 참여자는 제민일보(11월 23일자) 5면, 4주차 참여자는 뉴제주일보(11월 30일자) 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성명은 가나다 순서로 표기하였습니다.